

조계종 · 선학원 연일 날선 공방

“선학원 종도 제재 풀자” vs “법인관리법 폐지부터”

조계종, 선학원 문제 대중공사 의제 선학원 내 종단 지지 분원장 모임

법인 등록을 둘러싸고 조계종과 선학원이 연일 날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계종은 11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의제로 선학원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정상화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현 이사진을 제외하고 선학원 종도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학원 이사회는 법인관리법부터 폐지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선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 법등 스님은 10월 28일 공주 태화산 한국전통문화원 수원에서 열린 제8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특별 제안에 나서서 종단적 관심과 제재 해소 등을 주장했다.

스님은 현재의 선학원 이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등 스님은 “가처분 소송에 선학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계종이 70%라고 한다. 나머지는 타종단과 재가자”라면서 “분원장 제임, 장건주 계승 때 조계종 승적 포기를 중용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다른 교단의 사찰을 등록받고 있다. 이대로 5~6년이 지나면 조계종 비율은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재단 소속 사찰은 종단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1000명이 넘는 종단 수행자들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정임을 전제하고 제재 조치 해소를 제안했다. 법등 스님은 “현재 선학원 내 종도들은 죄가 없다. 상충부의 갈등으로 일선 사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선학원 종도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재 조치를 선거권 · 피선거권 제외하고 풀어줬으면 한다. 다만 현 이사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8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는 선학원 문제를 차기 의제로 병합해 함께 다루는 의견을 모았다.

선학원 내부에서도 현 이사진의 정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선학원 사찰 분원장 및 장건주 스님 32명은 10월 26일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서 모임을 갖고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선학원과 조계종은 한 뿌리로 어떠한 경우에도 선학원이 탈종단화해서는 안 된다’ 등의 3대 원칙을 세우고 활동에 들어갔다.

반면 선학원 이사회 측은 조계종이 제안한 특별교구화 등 협의안 제안을 거절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4월 법인법 제정 · 공포로 재단과 종단 간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한 것”이라며 “법인법 때문에 종단과 재단이 불화가 지속되는 것이기에 법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원장 스님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비불교적이다. 소송을 해놓고 분원에서 회유하고 있다. (법등 스님) 본인은 회유 협박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비구니 스님 등에게는 그 자체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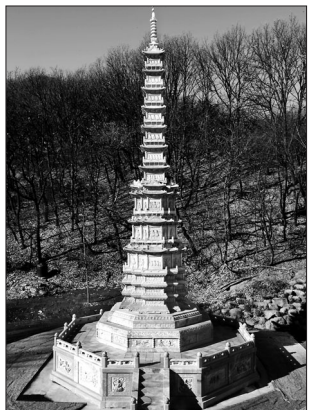
경천사지 석탑 계승한 玉塔 ‘우뚝’

천태종 관문사 10월 30일 옥불대보탑 낙성법회

천태종이 13년 간 공을 들여 제작한 관문사 옥불대보탑의 낙성을 기념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옥불대보탑 주변에는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묘법화경>을 돌에 새긴 석경불벽을 조성,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도 일신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10월 30일 관문사 옥불대보탑 점안식에 이어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관문사 10층 옥불대보탑은 국보 제86호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본따 옥(玉)을 재료로 13년에 걸쳐 조성됐다. 탑은 높이 20.7m, 기단부 지름 12m의 8각 10층으로 이뤄졌다. 탑 내부에는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모셔 온 부처님 진신사리 7개가 봉안됐다. 탑의 주변에는 <묘법화경>을 새긴 석경불벽(石經佛壁)을 조성했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논문 ‘한국의 천태사상을 반영한 관문사 옥불보탑’에서



천태종 관문사에 들어선 옥불대보탑. 13년 간 불사를 진행해 10월 30일 낙성했다.

“관문사옥불대탑은 고려시대 경천사탑의 양식을 모방한 것이지만, 그 탑에 반영된 천태사상을 다시 한 번 오늘에 환기시키고 있다는데 그 역사적 의미를 살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주일 기자

성역화 · 복지 등 중점과제 역점 추진

조계종, 27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 총 530억원 규모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내년부터 총본사 성역화 · 승려복지 · 중앙 교구 균형 발전 등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5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기획실은 10월 2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중앙중무기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중무기관 일반회계 예산은 250억 2360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283억 9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800만원(4.1%) 가량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6억 8000만원(18.4%) 가량이 늘어났다.

세입의 경우 중앙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해 18.7%로 증가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는 올해 배정액과 비교했을 때 약 6억 9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중앙총회에서 ‘분담금납부예관한법’에 의한 분담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김용구 기획실장은 “사찰 결산액을 대비한 요율표를 적용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제대로 하자면 일선 사찰에 부담이 크기에

조정해서 18%가량이 증가했다. 조정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내년도 사업을 가능할 수 있는 세출 예산에서는 총본사 성역화 특별회계 예산이 가장 도드라진 증가 폭을 보였다. 실제 올해에는 2억 5800만원이었던 예산이 27억 10만원으로 24억 원 가량이 증가했다. 일

총본사 · 복지 예산 대폭 증가
세종시 종교용지 추가 확보
세입, 중앙분담금 18% 확대
종교교과서 · 세계화 사업 추진

반회계에서도 2억 원의 전출금이 배정돼 있다. 조계종은 현재 관련 성역화물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토지매입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7년 첫 삽을 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74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97억 6300만원으로, 23억 원 가량이 늘어났다. 일반회계 전출금도 5

억 원이 배정됐다. 시설 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종단에서 꾸준히 진행 중인 신도시 종교 용지 확보 사업 때문이다. 내년도에도 조계종은 세종시에 2000평 규모의 종교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 특별회계도 기존 27억 800만원에서 36억 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1년 만65세 이상의 무소득 · 무소임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승려복지제도는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구축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서별 예산을 보면 총무부는 75억 7400만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보다 10.4% 증가된 것이다. 눈길을 끄는 사업으로는 중앙교구발전위원회로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앙교구 균형 발전은 총무원 중점과제 중 하나이다.

기획실은 전년 대비 32.9% 증액된 12억 97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는 총령 기구로 출범한 사부대중위원회의 예산(1억 8000만원)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제안된 미래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예산(2400만원)에 따른 것이다. 불교사회연 구소에서 추진하는 초중고 종교교과서 제작 사업도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항상 동결에 가까웠던 원로회의 등 종정기관도 전년 대비 11.7% 증액된 3억 원으로 배정됐다. 내년 종정 진제 스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종정추대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9억 6000여 만원이 편성됐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외 박물관의 종단 소유 불교문화재 환수 추진을 위한 조사사업인 ‘정보문화재 국제환수’ (900만원)를 비롯해 불교무용대전(1000만원), 연등회 보존 위원회 지원(4억 4420만원) 등이 진행된다.

사회부는 전년 대비 600여 만원이 감액된 23억 8207만원이 배정됐다. 한 · 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프랑스 방문과 중앙아시아 한국불교 소개 등을 주요 자원으로 한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책정됐다. 또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시즌2’를 위한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 예산으로 1억9300여만원, 이주민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등에 4000만원이 책정됐다. 표교원과 교육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

총무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중앙총회 재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3일 개원하는 중앙총회 제204차 정기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탈핵 · 노동 등 사회 문제, 불교가 나서자

조계종 8차 사부대중 대중공사 참가 대중 사회 실천 ‘한 목소리’

자승스님 “탈핵선언, 신년회견 발표” 시민사회 전문 인력 양성 · 교육 필요



조계종은 10월 28일 공주 태화산 한국전통문화원수원에서 제8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국민과 대중들에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사회참여는 선택 아닌 필수이며, 중요한 불사이다.”

‘종단의 사회적 실천과 역할’을 주제로 10월 28일 열린 제8차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실천의 당위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이를 통해 10개의 모둠은 생애 · 환경, 노동,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실천 방안들을 제안했다.

특히 탈핵운동과 대체에너지 도입 등 환경 부문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발표됐다. 1모둠은 “이웃 종교인 원불교에서는 창종 100주년을 맞아 햇빛 발전소 100개 설치를 사업으로 삼았다. 국고 지원도 이뤄지니 사찰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단에서도 에너지 사업단을 구성하고 인식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탈핵선언을 이뤄내자는 의견도 제안됐다. 6모둠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대체 에너지 도입에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원전 문제 해결도 시급한 사안이다. 종단에서 이번 기회에 탈핵 선언을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스님 역시 “핵의 위험성에 공감하고 위험천만한 사안이다. 대중공사 차원에서 탈핵선언을 하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내용을 정리해 내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할 것

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탈핵선언을 포함한 대중공사에 논의된 모든 사안은 종합적으로 검토 정리해서 내년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실천 사항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도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승가대학에서부터 사회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신도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 실천의 중요성을 높이는 강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또한 고질적 문제인 사회 문제 전문 인력 양성과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도 제안 사항으로 나왔다.

한편,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중공사 회향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주태화산·신성민 기자

조계종 종관위 개최 무산 일면 스님 추천 이사회로

일면 스님 등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조계종 종합학교 관리위 100차회의가 성원미달로 개최되지 못했다.

종합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삼해)는 10월 2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위원장 삼해스님과 위원인 현민 · 환적 · 명준 · 지성 스님만이 참석해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위원장 삼해 스님은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오셨는데 회의가 성원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음회기 일정을 잡아 성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기가 만료된 뒤 후보로 추천받지 못한 동국대 이사 후임 선임은 이사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2015년 8월 18일 개정된 학교법인 동국대 정관 24조 3항에 의하면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다만 법정기일 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칙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한국총장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조기유학생 모집

- ① 초6년 - 고3 재학
- ②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tcm.com

①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석 사 과 정	3년	10명	· 입학신청서 1부
박 사 과 정	3년	10명	· 여권용사진 10매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② 학교소개

- ▶ 세계적 1위 명문 국립 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 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③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시스님 추천자

⑤ 문의처

☎ 전화: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78 (논현동 2-14 2층)
- 전화: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중의대 칙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한국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